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COLOURS THAT BLIND

가제 : 흰 피부 아래 아름다운 어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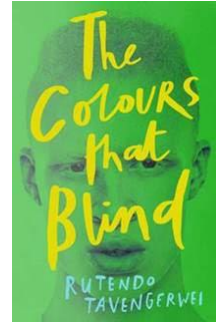
저자 : Rutendo Tavengerwei

출판사: Hot Key Books (14 May 2020)

발행일: 2020년 5월 14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짐바브웨를 배경으로 독립과 자유, 세대 간 화합 및 과거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

* CILIP Carnegie Award 2019 후보에 올랐던 작가의 신작

짐바브웨에 살고 있는 소년 투미에게는 간절한 꿈 한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국가 수영팀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오직 수영만이 백색증을 갖고 있는 그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시 할머니와 지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자 투미는 과거의 아픔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투미는 과거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 끔찍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화해와 용서의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이다.

열 세 살 소년, 투미는 짐바브웨에서 부모님 대신 언제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려고 노력하는 형 므모카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투미는 백색증을 갖고 있는 흑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특히 학교에서는 늘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으며 조롱과 멸시를 겪어야 했다. 처음 지금 학교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투미는 이전과 다르게 자신이 그리 튀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학교에는 이례적으로 흑인과 백인 학생들이 섞여 있었고 심지어는 중국인 혈통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는 이곳에서조차도 자신이 피부색 때문에 남들과 다른 존재로 취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투미에게는 자신이 제일 잘 하는 일인 수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다. 사람들이 백색증은 혐오할지 몰라도 수영 선수 챔피언에게는 언제나 환호와 존경을 표시 했기 때문이다. 투미는 단순히 재능 있는 수영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연습에 매진하는 것을 물론이고 어떻게든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근육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 생물학과 신체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구파이자 노력파 수영선수였다. 투미가 소속된 학교 수영팀 코치 느고니는 차기 수영팀 주장을 선발전하기 위해 고민 중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미가 단연 학교 최고의 수영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미가 주장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 뒤에는 투미를 비웃는 다른 목소리들도 숨어 있었다. 투미보다 실력은 훨씬 떨어지지만 투미의 경쟁 상대인 본가니는 이미 테니스와 달리기 팀 주장이니 아이로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생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학생이었고 많은 이들이 수영팀 주장 역시 그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게다가 형 므모카는 백색증을 갖고 있는 투미가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 늘 탐탁지 않아했다. 수영장 물 속에 있는 염소 성분은 특히나 백색증을 악화시킬 확률이 높았고 그것은 곧 투미가 더 자주 피부과 진료를 받고 비싼 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므모카는 언제나 투미에게 자신들 같은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법이라고 가르쳤다. 므모카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세상은 짐바브웨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그들은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기 일쑤였고 다른 나라에게 강탈당하는 바람에 빈곤의 세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오히려 조롱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짐바브웨 사람들의 과거의 불운을 탓하며 언제나 트라우마와 피해의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하곤 했고 피부색이 검으면 검다고 혹은 투미처럼 하얗게 얼룩진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것을 빌미 삼아 비난하고 알보았다. 때문에 투미는 므모카를 통해 짐바브웨의 현실과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므모카는 일 때문에 짐바브웨를 떠나 출장을 가야 했고 때문에 투미는 할머니 암부야가 있는 곳으로 가서 머물게 되었다. 하지만 투미는 그 말을 들은 직후 곧바로 겁에 질렸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암부야는 한 때 거리에 나가 마을 사람들을 죽이거나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투미는 학교 교사였던 아버지가 2008년 실종된 후 더욱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암부야는 므모카를 미국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든 가구들과 신장과 같은 자신의 장기까지 다 팔아버린 사람이었다. 때문에 투미는 아무리 암부야가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도 정확한 증거도 없이 형의 앞에서 할머니를 비난 할 순 없었다. 그리고 할머니 집으로 가기로 한 날 아침 투미는 짐을 싸던 중 므모카의 침대 밑에서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할머니와 주고 받았던 편지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한편, 1975년 3월 16일, 당시 암부야는 한 영국인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다. 암부야의 백인 고용주들은 밥 먹듯이 암부야를 멸시했고 암부야는 의지할 사람조차 하나 없었다. 같이 혁명을 준비하던 동지들은 죽어나가고 있었으며 마을 성인 남자들은 짐바브웨의 독립을 위해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투미는 암부야를 만나 과거에 암부야가 짐바브웨의 독립 전쟁을 위해 싸우며 젊은 여성으로서 어떤 시련과 고통을 겪었는지 하나 둘 알게 되고 할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의 비극적 역사와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현대를 살고 있는 투미의 시선과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던 암부야의 시선을 통해 짐바브웨의 슬픈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그린 가슴뭉클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루텐도 농사 타벤게르웨이 (Rutendo Nomsa Tavengerwei)는 18 세까지 짐바브웨에서 살았으며 Witwatersrand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남아프리카로 이주했다. 그녀는 World Trade Institute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현재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전작은 데뷔작인 『HOPE IS OUR ONLY WING』 이 있다.

제목 : FRONT DESK
가제 : 안내 데스크의 미아
저자 : Kelly Yang
출판사: Arthur A. Levine Books
발행일: 2019년 6월 2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성장 소설/8-12세



- *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독자들이 자기 자신 혹은 이웃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커커스 리뷰」
- *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스쿨라이브러리 저널, 워싱턴 포스트, 커커스 리뷰, 아마존 선정 2018년 최고의 책
- * Asian Pacific American Award 수상작, NBC , NPR, 2018년 최고의 책
- * 뉴욕 공공 도서관, 시카고 공공 도서관 선정 올해의 책

미아 탕 가족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강한 이들이었지만 최근 중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로 이 낯선 곳에 아는 사람 하나 없었고 미국 생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미아 탕 역시 똑똑하고 재능 있는 소녀였지만 영어도 아직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미아는 과연 이 곳에서도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실제로 미아와 거의 비슷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 동양인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 계속되는 불의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 맞서 싸우는 불굴의 한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이다.

1990년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한 모텔, 이 장소는 미아에게 있어 비밀과 같은 곳이었다. 공산주의 중국을 탈출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온 미아의 가족들은 꿈에서나 보았던 그런 커다랗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머물다가는 허름한 이 모텔에서 살고 있었다. 미아의 부모님들은 중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이었다. 하지만 미숙한 영어에 연고하나 없이 낯선 곳에 오게 된 두 사람은 몸을 쓰는 힘든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미아네 가족들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동안은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며 자동차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 해야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디즈니랜드에서 5 마일 정도 떨어진 애너하임의 한 모텔 캘리비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사장 야오가 모텔에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 모텔을 돌보는 일을 맡아달라고 제안했고 미아네 가족은 그 이후 이 싸구려 모텔에서 살게 된 것이다.

미아네 가족은 야오 사장의 야비함과 구두쇠 같은 면모, 그리고 그의 무례한 아들 제이슨의 본 모습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제안이 마치 꿈을 이루어주는 기적의 통로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야오는 처음 약속한 급여보다 더 낮은 급여를 제공했고 모든 이유를 다 대면서까지 돈을 더 적게

주려고 했다. 게다가 그 곳에는 모텔을 청소하는 직원들도 없었기 때문에 미아의 부모님은 하루 종일 모텔을 청소하고 객실 용품들을 빨아야 했다. 그리고 미아는 일손이 부족한 부모님들을 도와 모텔 안내 데스크를 직접 맡았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 일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모텔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미아는 그 때마다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손님들 중에는 미아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 루이스 역시 미아에게 무턱대고 더 큰 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어른들과 달리 미아가 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어린이들은 일이 아니라 노는데 더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미아에게 말했다. 하지만 미아는 그의 말을 황당하다고 여겼다. 미아가 살았던 중국에서 아이들은 절대 노는 법이 없었고 다들 어릴 때부터 책상에 앉아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은 오직 가족들이 모임을 갖는 시간뿐이었다. 미아는 루이스에게 자신은 일을 하는 게 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왜냐면 미아는 모텔을 운영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아는 언젠가 자신의 꿈인 회계사나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텔 일이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게다가 미아는 이 모텔에 찾아오는 다른 중국인 이민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들을 모두 '이모'나 '삼촌'처럼 생각했다. 미아의 부모님 역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그들을 위해 야오 몰래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했다

얼마 후 미아는 가족들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자신들만의 모텔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아는 때마침 한 에세이 경연 대회에 대상 상품이 다름 아닌 버몬트에 있는 한 모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대회에 참가해 우승하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아의 어머니는 미아가 작가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왜냐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미아에게 작가의 길은 터무니 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미아에게 글쓰기 보다는 수학에 더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미아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글들을 쓰기까지 조금씩 자신의 영작문 실력을 키워나갔다. 미아는 결국 에세이 경연대회에서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이 모텔을 구입하고 다른 수백 명의 가난한 이들의 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기 위해 전심을 다한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두운 이면과 인종 문제,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켈리 양 (Kelly Yang)은 어린 시절 가족과 중국으로 이민 왔고 이 책의 주인공 미아 탕과 매우 유사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녀는 결국 모텔을 떠나 13세에 대학에 진학했고 UC 버클리 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하지만 졸업 후 그녀는 글쓰기와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 법률 관련 일을 그만 두고 작가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Lea The Kelly Yang Project의 창립자이다.